

‘김미라 소방경’ 전남 최초 여성 119구조대장

강진소방서는 전남 최초로 여성 구조대장으로 김미라 소방경을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미라 119구조대장은 1996년 10월 전남 2기 구급대원으로 소방에 입문했으며 23년간 화재, 구조, 구급현장 활동과 함께 3년 동안 예방행정업무로 쌓아온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 전남 최초 첫 여성 119구조대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대장은 구급대원으로 활동중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살려 하트세이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소방청이 주최한 안전분야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행정안전위원장상을 수상했다.

23년 현장 경험...행정안전위원장상 등 수상



또 드론1종지도조종자 면허와 화재감식평가기사, 위험물기능사, 잠수자격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해 소방업무추진 및 꾸준한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 대장은 “소방관이라면 어떤 분야에서도 맡은바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강진소방서 구조대원들과 함께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정 강진소방서장은 “전남 최초로 여성인 김미라 119구조대장을 임명하고 여성의 섬세함과 20여 년간의 현장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강진 119구조대가 군민의 신뢰를 받는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밝혔다.

/강진=한홍수 기자

포토뉴스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청렴하면 따듯해요’ 캠페인 원이 17일 청렴의 지 함양을 위한 ‘실맛이 부패방지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청렴하면 따듯해 집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청렴의미를 통해 그동안의 홍보 방법에서 벗어나, 함께 생각하고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김도기 기자



순천소방서, 49명 전입 소방공무원 임용장 수여 순천소방서는 지난 16일 3층 대회의실에서 전입 소방공무원 49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순천=조순의 기자



한우산업 위기극복과 발전방향 토론회 지난 16일 전남도의회 박형태 의원(진보당, 장흥1)은 ‘한우산업 위기극복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한우가격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인한 한우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위기 극복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진보당 박형태 도의원의 제안에 의해 전국한우협회광주전남도지회, 전남광주전남연맹이 함께 준비했다. /박종배 기자



순천국유림, 설 명절 맞아 복지시설 방문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6일 설명절을 맞이해 이동복지시설인 행복센터를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의 시간을 가졌다. /순천=조순의 기자

무안농협, 설 맞아 지역 노인복지시설 위문



무안농협(조합장 노은준)은 지난 13일 지역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피로도가 심한 사회 복지시설 무안실버요양원(시설장 김선화)에 방문해 생필품, 라면, 간식 등을 전달하고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무안=박태연 기자

현대제철 순천공장, 박람회 성공개회 기원 토크 큰 기부

정원박람회 기간 문화행사 공연료 5600만 원 기부



현대제철 순천공장이 지난 16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회를 위한 기부금(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노관규 이사장, 현대제철 순천공장 강연채 상무, 한석욱 팀장, 김용철 기술선임, 이보람 매니저가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 기간 문화행사를 개최할 공연료 5600만 원을 기부했다. 특히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해당 기부금이 인직원 참여기금으로 어려움에 동안 모은 성금이라고 밝히며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

원의 박람회 방문을 약속해 더욱 뜻깊은 전달식이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지속 성장 가능한 친환경 철강사’라는 기업 정체성에 맞게 ESG 경영의 선두 주자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으로, 강연채 상무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에 걸맞은 국제 정원박람회를 위해 순천시의 대표 기업으로써 힘을 보태게 됐다”고 전해왔다.

노관규 이사장은 “세계적으로 문화한 경제 성장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에도 토크 큰 기부에 감사드리다”며 “남은 기간 동안 막바지 박차를 가해, 박람회 성공으로 보답하겠다”며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순천=조순의 기자

구례 중동초 농산어촌유학 학부모 기탁



구례 중동초등학교에서는 지난 16일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이지는 학부모가 중동초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총 270만원)을 기탁했다.

이지은 학부모는 1년 6개월 동안 전남농산어촌유학 생활을 하면서 느낀 이야기를 소재로 소설미디어를 통해 모집한 구독형 에세이 제8회를 연재했다. 여러 구독자에게 호응을 얻어 모금된 장학금을 중동초 지역학생 18명에게 각각 15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구두수선공 김주술씨 설 맞이 성금 기탁 ‘눈길’

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인교차로에서 구두 수선 가게를 운영하는 김주술씨가 매일 구두를 닦아 번 수익금 일부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매일 구두를 수선해서 번 수익금의 10%를 돼지저금통에 모아 15년 동안 꾸준한 나눔 행보를 펼쳐왔다. 동구에는 지난 2021년 이래 올해(116만8000원 상당)까지 총 180여 만 원을 기탁했다.

가수 남진, 고향 목포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전달

연간 기부 최대금액 전달...목포시 제1호 고액 기부자



가수 남진씨가 목포시에 고향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전했다.

전남도 고향사랑 홍보대사이기도 한 남진씨는 고향 목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며, 지난 16일 목포에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기부 최고액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는,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목포시 제1호 최대금액 기부자이다.

목포 창평동에서 태어나 확장시절을 보내고 지난 1965년 가수로 데뷔한 이래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남진씨는 수많은 히트곡과 뛰어난 무대 매너로 국민가수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남진씨가, 남진 야시장(자유시장) 등 목포의 남진을 테마로 한 공간들도 시민과 관광객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남진씨는 “태어나고 자란 내 고향 목포에 기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힘들 때마다 엄마 품처럼 따뜻하게 위로 받았던 목포를 잊은 적이 없고, 이런 애절한 마음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목포=김근호 기자

창립 36주년 노화읍 청년연합회 이·취임식

제21~22대 회장단, 감사 이·취임식·전역식 거행



완도 노화읍청년연합회는 17일 오전 11시 제21·22대 회장단, 감사 이·취임식 및 전역식을 17일 노화읍 중학교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이날 시상은 공로패에 이철 전남도의원·박성규 완도군의원·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이홍용 22대 노화읍장, 감사패에는 노화파출소 소장 윤준영, 노화해경파출소 소장 소경근, 노화읍사무소 백용만, 노화읍청년연합회 상임이사 박재용, 전역패에는 이은호·이승길·김사룡·박금철 선배들이 수상했다. 김 구 이임회장은 “지난 2년 동안 노화읍 청년연합회를 이끌어 오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노화읍 젊은 봉사단체로 지역을 위해 노력해준 청년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제 22대 김영무 회장은 “통합 변화로 하나되는 슬로건으로 2023년 노화읍청년연합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이두식 기자

광양교육청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설 명절 맞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광양교육지원청은 설을 맞아 광양 지역 농수산물의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16일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직원들이 광양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활용해 광양5일시장을 방문해 설 제수용품 장보기에 동참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광주학생교육원, 우리 가족 1박2일 캠프

가족 단위 캠프 참여 만족도 높아...소통·회복의 시간



광주학생교육원이 올 2023년 ‘우리 가족 1박2일 캠프’를 시작했다. 17일 광주학생교육원에 따르면 ‘우리 가족 1박2일 캠프’는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율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대표 사업이다. 초3~중3 자녀를 둔 가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총 6기 500여 명이 참여한다.

지난 13~14일 29가족 92명이 참여해 1기로 막을 열었다. 이어 오는 27~28일 26가족 94명이 참여하는 2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전체가족, 레크리에이션, 포토엔터테인먼트, 천연산 숲 놀이 등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캠프에는 도시와 일상생활의 각박함을 떠나, 자연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소통과 화합을 북돋우려는 뜻을 담았다. /김도기 기자